

## 다자이후에서의 색상과 위계

색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고대 일본에서 관리들은 위계에 따라 정해진 색상의 의복을 착용했습니다. 소치(장관)는 전시된 인형과 같은 색상의 열은 보라색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신분적 지위에 따라 특정 색상의 의복을 착용했습니다. 고대 다자이후에서 위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관리 제도에서 특정 일에 대한 취임 자격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 국내의 신사에서는 이러한 위계 제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다자이후 텐만구 및 가마도 신사에서도 신관은 지위에 따른 특정 색상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허리띠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 케이스의 왼쪽에 있는 허리띠 장식은 지위가 낮은 관리가 착용했던 평범한 허리띠와는 대조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허리띠는 의복 안에 착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평평한 모양의 나무 판자는 목간(木簡)입니다. 목간은 과세품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나 재사용할 경우에는 글자가 적힌 판의 표면을 날카로운 칼로 얇게 깎아내 판자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간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종이가 값비싸고 공급량이 적은 물품이었던 당시에는 널리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정중앙에 전시된 물품은 벼루와 송연으로 만들어진 먹의 복원품입니다. 송연은 아교와 함께 반죽하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형(舟形)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모은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를 수록하고 8 세기에 완성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와카집 ‘만엽집(萬葉集)’에는 다자이후에서 읊은 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 문장가는 만엽집에서 볼 수 있는 와카의 일부를 기록하고자 이 같은 문방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